

3·1절에尹 때린李 “日자위대 망언, 실언이라도 해선 안될 말”

3·1절 방송연설서 ‘친일’ 공세…“듣는 순간 깜짝” “주변 강대국과 북한에 할 말 하는 대통령 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1절을 맞이한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한미일 군사동맹과 관련 (일본이) 유사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는 발언을 “이것은 망언이다. 국민들도 놀라셨겠지만 저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윤 후보를 때리며 ‘친일 프레임’을 부각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KBS1 TV를 통해 방송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제5차 방송연설에서 “지난번 TV토론회에서 ‘유사시에 일본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국가관, 일본 인식에서 나온 말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소신이 아니라 실언이라 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을 ‘유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실 때도 황당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 대한민국 정부 탓이다 이렇게 하셨을 때도 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우경화 된 게 어떻게 우리 정부 탓일 수 있나. 이번 ‘일본 자위대 한국 진입’ 관련 발언에서 윤석열 후보님의 외교안보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과거 침략사실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 땅에 발을 들여놓는 일, 저 이재명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은 3·1절이다. 완전한 자주독립을 염원하신 순국선열과 우리 국민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나라를 빼앗기고 삼켜야 했던 그 통탄의 눈물과 치욕의 역사를 꼭 기억하겠다”며 “90년 전, 상하이 훙커우 공원 의거로 사형당하신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일본 어느 공동묘지 쓰레기 하치장 통행로에 묘비도 없이 묻혀 있었다. 일제가 형사 절차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암장해서 아무나 함부로 밟고 지나다니도록 일부러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서도 “선제타격 주장은 군사적 갈등과 위협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며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 국가안보를 정쟁도구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얻어 보겠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것,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나라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도 필요 없다는 사드를, 윤석열 후보는 굳이 1조5000억원이나 들여서 설치하겠다는데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주장”이라며 “과거의 북풍이 오늘의 사드 추가 배치로 나타나고 있다. 안보를 정략에 이용해서 안보를 망치고 경제를 악화시키면 안 된다. 그건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다.

‘6개월 초보 정치인인 러시아를 자국하는 바람에 충돌했다’는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피해야 되고 한 국가의 영토와 주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발맞춰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쟁이 멀리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 키예프 시내의 참상이 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런 것”이라며

“실제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세계 증권시장이 폭락하고 원자재 부족으로 물가가 폭등하는 혼란, 이런 비극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다만 두 나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서 역사 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 부분을 나눠서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문제와 미래문제를 분리하고 진지한 소통을 통해서 양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면서도 일본 정부의 ‘오부치 선언’ 위반,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추진, 군함도 조선인 강제동원 왜곡,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언급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역대 총리들은 나치학살과 과거사를 반복해서 사과했다. 철저한 반성과 성찰 속에 패전국 독일은 이제 유럽의 선도국가가 됐다는 점을 꼭 기억하라”고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의 안전과 평화, 국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만날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남북은 정전상태이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춰있는 상태라는 것”이라며 “남북 정상 간에 이미 두 차례나 합의했던 종전선언 문제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변 강대국과 북한에게 할 말은 하는 강한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김재환기자

윤석열 “우크라이나 사태, 한미동맹 강화·발전 좋은 사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이번에 좋은 사례로서 다시한번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병원 정문 앞에서 유세를 갖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 변형은 군대를 갖지

“輿, 한중 균형외교 하면 방위비 더 많이 드는 것 간과”

못하게 하는 평화헌법 때문에 국방비를 들이지 않아서 저렇게 엄청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한 것 다 알고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은 한중 균형외교를 한다고 점점 미국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다”며 “좋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방위비가 천정부지로 더 많이 든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자주 국방력과 강력한 동맹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주독립을 지키려면 우리의 자주국방력도 중요하고 국제적인 연대와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최강국가인 미국과 한미 동맹을 70년 간 지속해오면서 그걸로 방위비

안철수 “국민의힘, ‘국민경선’ 테이블 위에 안 올랐다는 건 변명 안 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일 국민경선 여론조사에 협상테이블에 올린 사실이 없다고 한 국민의힘 반박과 관련해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그 말은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3주 전에 전 국민 앞에서 제안을 했지 않나. 저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야권 단일 후보가 뽑히면, 그것이 모든 지지자들을 다 결집시키는 굉장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주말 몰뎀 협상과 관련해서 “제가 기대하기로는 3주 동안에 왜 아무런 대답이 없었는지 그리고 제가 제안을 했었던 국민 경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답을 들을 줄 알았다”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어떠한 요구도 한 적이 없다”며 “저희들은 단지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들으려 간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유세에서 ‘정권 교체’를 언급하는 횟수가 감소했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안 후보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이 정말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따져야 된다”며 “체대로 국가를 운영하지 못한 정치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정권 교체가 되면, 정권을 잃은 세력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한번 더 정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정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세력은 정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신념은 저한테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